

광주서도 아파트 '낙하물 공포'

주스 병 떨어져 차량 유리 파손 입주민들 물건 투척 불안 호소 공고문 붙이고 용의자 찾기 나서

지난달 22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여·59)씨는 새벽 기도를 나섰다가 깜짝 놀랐다.

전날 아파트 쪽을 향해 지상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YF소나타 앞 유리에 금이 가 있었고, 차량 주변에는 감귤주스 병(180ml)의 깨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차 주변을 오간 사람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최상층이 20층인 이 아파트의 특정층에서 누군가가 감귤주스 병을 아래로 던진 것이다. 김씨는 현재 주스병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현관 등에 공지문을 붙이고 방송 등을 통해 주스병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고 있다.

김씨는 "인도가 없는 화단쪽으로 전면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차 앞에서 음료수 병을 던질 수 없는 상황으로, 그나마 사람이 맞지 않고 자동차 앞 유리만 깨져 다행"이라면서도 "누군가가 아파트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던진 음료수병이 차 앞 유리를 훼손한 것이 확실해 아파트 경비실과 경찰에 신고를 했다. 앞 유리 교체 비용으로만 50만원이 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난감한 상황이다. 아파트 베란다를 찍고 있는 CC(폐쇄회로)-TV가 없고 잘게 깨진 유리병에서 지문을 채취하기도 쉽지 않아 용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리병 투척 사건

< 신고 바랍니다 >
5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 이후 [제주시항 감귤사랑] 주스병을 105동 2-3라인 고층에서 앞 베란다 밑으로 던져서 주차된 차량 앞 유리 파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일곡파출소에 신고 되어 깨진 주스병을 수거 지문 채취 등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스병을 던진 신세대나 목격하신 분께서는 관리실이나 피해자에게 즉시 연락바랍니다.
이웃 간 법적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2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A아파트에 붙은 낙하물 사건 관련 공고문.

이 알려진 이후 일부 아파트 거주민들은 물건 투척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타 지역에서 아이들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친 사례도 있었던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야령, 식칼(길이 25cm)이 떨어져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어 광주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이어져 시민들이 '아파트 낙하물'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아파트 곳곳에서 각종 쓰레기부터 유리병까지 낙하물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여·59)씨의 차량 파손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아파트 베란다나 창문 등을 통해 떨어진 유리병이 김씨의 차량 앞 유리를 깨 것으로 보고, 해당 병을 던진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제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아파트 대부분이 현관과 주차장을 비추는 CC-TV만 있을 뿐 김씨의 차량이 주차된 방향인 아파트 외벽은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주스병 지문 감식에도 나섰지만, 워낙 잘게 깨진 탓에 지문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주스병이 떨어진 인근 동 전체 세대를 상대로 탐문을 하고 있지만 병을 떨어뜨린 사람이 자수를 하지 않는 한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구 두암동 B아파트에서도 지난달 5일 새벽 1시께 높이 60cm 크기 철제 나무 트리가 복도쪽에서 1층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지만, 용의자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도 CC-TV에 물건을 투척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아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누군가 고의로 트리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아파트 곳곳에 알람문을 붙이는 등 용의자를 찾고 있다.

7년 전 일어난 하지만, 지난 2011년 9월 9일 오후 3시15분께에는 서구 풍암동 C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16층 옥상에서 1층으로 벽돌을 던져 행인이 부상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재용(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장은 "끊이지 않고 있는 아파트 내 낙하물 사건은 대부분 어린이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부모는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건을 아파트 아래로 던지지 않도록 교육해야한다"며 "특히 옥상에서도 낙하물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옥상문을 경비실에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고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가 4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택시운전사' 김사복씨 아들, 지만원 고소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73광수' 지목 당한 지용씨도 함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사복씨의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76)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씨로부터 북한 특수군인으로 지목당한 5·18 참가자 지용(76)씨도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사복씨의 아들 승필(59)씨와 지용씨는 4일 지만원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지만원씨가 5·18 참사를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의 광주행은 도운 택시기사 김사복씨를 명쾌하게 글을 인터넷(시스템클럽)에 올린 게 고소의 발단이 됐다.

지씨는 '힌츠페터가 5·18 음모에 가담한

간첩',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졌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수(북한 특수군인)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는 주장을 폈었다. 그러면서 5·18 기록사진에 등장하는 지용씨를 '제73 광수'로 지목했다. 지용씨는 지씨의 왜곡 사실을 접한 뒤 자신이 1980년 시민군 일원으로 항쟁에 참여한 광주 서구 주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1980년 항쟁 전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계엄군이 전일발명에 가한 헬기 사격 상황도 증언했다.

김씨와 지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지만원씨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을 기자회견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은 국방부가 2013년 5월 30일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고 같은 해 6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비밀 해제된 미국 국무부 문서에도 5·18 배후에는 공산주의자가 없고 북한군 투입 사실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만원의 글과 사진이 일베저장소와 극우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호프집서 야구 보다 '먹살잡이'

○...KIA타이거즈 열혈팬인 어르신들이 호프집에서 야구 중계를 보던 중 KIA 투수 양현종이 동점 홈런을 맞는 장면이 화가나 다뤘다가 경찰서행.

○...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71)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모 호프집에서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야구를 보던 중 예 테이블에 있던 배모(65)씨와 야구 중계 장면을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먹살을 잡고 욕설 등을 퍼부었다는 것.

○...이날 경기에서 결국 KIA가 3-5로 패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7회 초 KIA 투수 양현종을 상대로 두산의 김재환이 동점 홈런을 친 뒤 서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다음 달 술이 깬 김씨와 배씨가 지구대에 찾아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뒤 합의를 했다"고 설명.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출소 3개월만에 또... 편의점 강도 40대 구속

교도소를 출소한 지 3개월여만에 또 강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4일 '편의점에 들어가 흥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양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 56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한 편의점에 침입해 여종업원 강도(27)씨를 흥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새벽시간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얼굴 등을 가리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

했다.

경찰조사결과, 전과 18번인 양씨는 강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 2월 만기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경찰에서 "전과 때문에 취직이 되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택시를 타고 도주한 양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 최종 목적이던 서구 금호동에서 잠복근무 끝에 지난 1일 검거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 박동원·조상우 영장 기각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의 구속영장이 4일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이날 1일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범죄 피해 신고센터 운영

광주와 전남지역 여성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범죄 피해 사례를 모으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5·18기념재단 등이 참여한 오월민주여성회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성폭력과 고문수사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월민주여성회는 "5·18 유공자로 보상받은 여성이 258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역사에 가려졌거나 2·3차 피해를 보지 않고자 숨은 여성이 많다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단체 산하에 대책위와 신고센터를 만드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새로 출범할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성범죄 실상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여성단체 역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에도 전남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항쟁에서 계엄군의 성폭력은 국가권력이 성차별과 성적 학대를 구조적으로 자행한 국가폭력"이라며 "정부는 성폭력과 고문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전담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당시 여성들은 계엄군 만행을 알리고 항쟁 참여를 독려하는 거리방송에 나섰으며, 현월과 주먹밥 나눔, 희생자 시신 수습, 추모 리본 만들기 등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 투쟁에 적극 가담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